



《내 동생》 주동민 어린이시·조은수 그림 | 창작과비평사 | 36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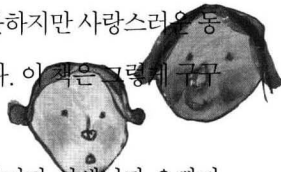
## 어리버리 바보 같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동생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운동에도 소질이 없는지... 그리고 왜 제대로 가져오라는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을 놓고 오는지...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늘 실수투성이인 아이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숙제를 왜 또 안 가져왔니?”라는 편지를 들고도 어느새 눈물을 닦고 운동장으로 달려가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를 보면 미움보다는 사랑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더불어 천진난만하고 착하기만 한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주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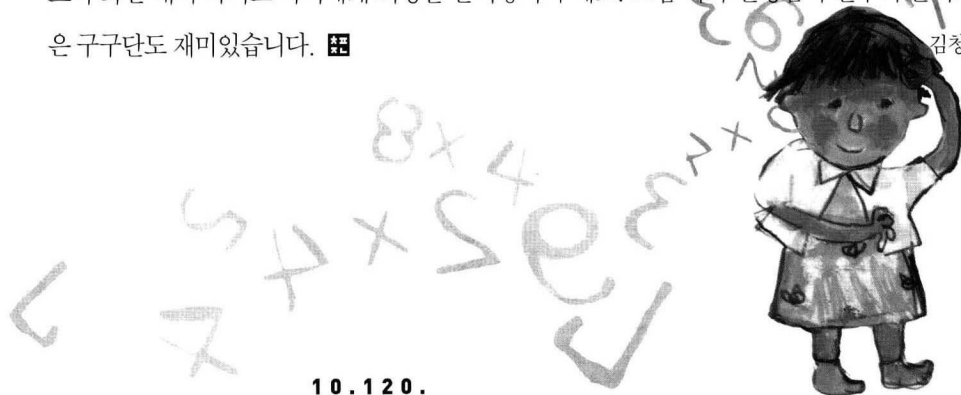


이 책의 시적 화자인 ‘나’도 여동생을 통해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글은 현재 25세의 직장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써놓은 일기라고 합니다. 내용은 얼핏 평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내 여동생은 구구단을 못 외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여동생의 담임선생님에게 불려가 망신을 당하게 되죠. 부끄러운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집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 방긋방긋 웃으며 놀다가 잠이 든 동생을 보니 미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동생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합니다. “나는 구구단이 미다”고. 이 책에는 교훈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지식을 전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감정을 잘 잡아낸 ‘어린 시절의 진실’ 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겪어봤을 ‘구구단 공포’ 앞에서 기죽은 오빠와 동생의 모습이 솔직하고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지만 사랑스러운 동생을 바라보는 오빠의 따뜻한 시선 앞에 서면 누구나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구구단을 잘 외우는 것보다 남매간의 우애와 사랑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에는 리듬이 숨어 있습니다. 짧은 동시가 리듬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선생님과 오빠가 크게 소리를 낼 때는 커지다가,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는 작아지는 활자는 오선지 위의 음표처럼 다른 박자를 냅니다. 동생의 교실에 들어가 쭈뼛쭈뼛 머뭇거리는 오빠의 모습, 동생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오는 오빠의 기죽은 모습도 방긋방긋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노는 동생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놀기 바쁜 동생을 둘러싸고 있는 숫자들을 보면 이 친구도 나름대로 구구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 혼내는 선생님들, 공부 못한다고 무조건 꾸지람을 하는 부모님들! 우리집 아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화만 내지 마시고 아이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럼 작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써놓은 구구단도 재미있습니다. ☞

김청연기자





《숲으로 간 고양이 마사》 이반 간체프 글·그림 | 채운정 옮김 | 산하 | 32쪽 | 값 8,000원  
 《할아버지, 바다가 넓어요》 고미타로 글·그림 | 남도현 옮김 | 달리 | 32쪽 | 값 8,500원

## “너도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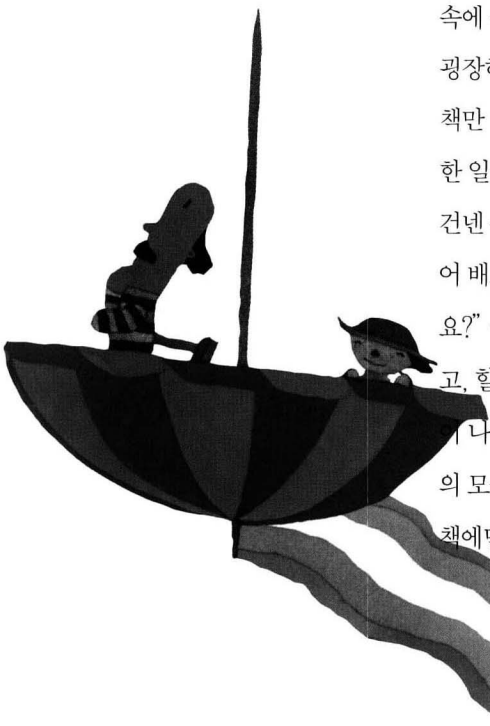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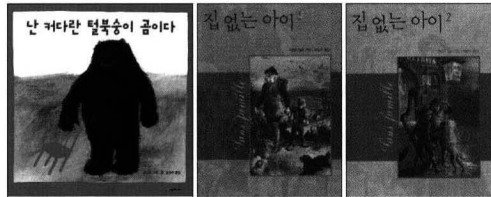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섭게 느껴졌던 고양이도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친구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눈이 크고 강한 인상을 가진 고양이를 마냥 무서워하지 말고 탐스러운 털과 동그란 눈을 가진 예쁜 친구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주인공 마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집안의 조용한 곳을 찾아 평화롭게 낮잠을 자는 평범한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통한 몸과 복스러운 털을 가진 이 친구는 보통 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부엉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동그랗고 커다란 눈을 가진 부엉이를 보고 부러움을 느끼는 마사. 마사는 부엉이처럼 예쁜 눈을 얻기 위해 부엉이가 시키는 대로 사흘 밤을 새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틀 밤을 새운 후 지치고 배가 고파 물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시냇가로 내려오죠.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부엉이 눈만큼 예쁜 자신의 눈을 발견합니다. “어, 내 눈도 부엉이 눈처럼 예쁘구나.” 마사는 집에 돌아와 “귀염둥이 마사야. 넌 털이 참 보드랍구나. 커다란 눈도 정말 예쁘고”라는 주인아줌마의 칭찬을 들으며 평온한 일과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자신의 외모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마사입니다. 이야기는 고양이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남처럼 예뻐지고 싶어하는 이 친구의 욕망을 예쁘게 잡아내고 있어 눈길을 끄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이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 줄 것 같습니다. 마사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

## 할아버지, 책만 보지 말고 여기 좀 보세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좌절한다고 합니다. “엄마! 저게 모야?” 라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은 어른들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볼 수 있죠.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납작한 모자를 쓴 소년 역시 넓고 푸른 바다가 한없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굉장히 넓어요.”, “우와, 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우주인 연구’ 라는 책만 읽고 있네요. 바다를 헤엄치던 분홍색 물체가 코끼리, 뱀, 예쁜 누나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중에도 할아버지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변화하는 것은 아이가 건넨 신기한 과자를 먹은 후입니다. 과자를 먹은 후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파라솔을 뒤집어 배로 만든 후 아이와 함께 하늘로 날아갑니다. 우주인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묻지만 할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과연 이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할아버지가 과자를 먹은 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두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아이가 말하듯 나타났다고 하자 “설마, 초원도 아닌데” 라고 무심하게 대꾸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책만 보던 할아버지가 아이가 말한 외계인의 과자를 먹고 변한다는 설정에서 책에만 빠져 있지 말고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라는 교훈이 보이기도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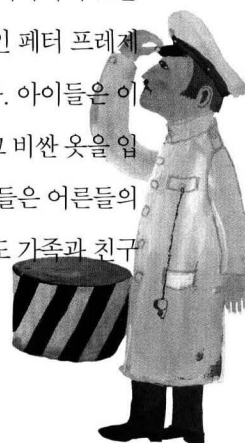




《난 커다란 털복숭이 꿈이다》 아노쉬 그림·글 | 조경수 옮김 | 시공주니어 | 32쪽 | 값 8,000원  
 《집 없는 아이 1,2》 엑토르 말로 지음 | 원용욱 옮김 | 공리 | 각권 384쪽 내외 | 1권 값 10,000원 2권 값 12,000원

## 와 신난다,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야!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하는 생각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업무에 시달리는 아빠, 취업을 못해 고민하는 형, 누나처럼 어린이들도 자신의 현실이 밍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한스는 엄마가 잔소리를 해낼 때마다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워 털복숭이 곰으로 변하죠. 그리고 곰이 된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교수업을 중단시키고, 친구와 갖가지 모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헤치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줍니다. 이 책은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음을 재치있게 보여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른들이 권력이나 돈,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보다 인간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거든요. 이는 한스가 늘 들고 다니는 빨간 의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한스가 엄마와 마주했을 때 앉았던 것으로 상상력의 세계로 나아가더라도 가족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동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곰으로 변한 한스가 가장 먼저 친한 친구인 페터 프레제를 찾아가는 행동 속에도 친구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갑부가 되어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는 꿈을 꾸는 어른들의 상상력으로는 어린이들의 꿈에 도달할 수 없죠. 요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무관심한 마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기발한 상상을 하면서도 가족과 친구를 버리지 않는 한스의 모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



## 레미의 방랑길, 우리모두 따라가 볼래?

요즘 어린이들은 밝고 명랑한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책 대부분이 ‘슬픔’이나 ‘절망’ 보다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가벼운 이야기를 소개하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고전명작으로 손꼽는 책들은 오히려 삶의 아픈 진실이나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집 없는 아이》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숙함을 배워가는 소년의 삶을 잘 그려낸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날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레미가 자신도 모르게 험난한 세상에 내던져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올리버 트위스트》만큼 드라마틱한 위기와 절정의 순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늘 비슷한 형식의 단순한 이야기를 접하던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흥미요소만 끌어내서는 안 되겠죠?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황량하고 험난한 탄광지대의 삶, 어린이를 노동력으로 여기고 착취하는 어른들의 잔인함 등을 문학적인 표현을 섞어 보여주는 이 책의 핵심은 이 위험한 방랑길에 선 주인공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우정과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을 통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레미의 삶을 통해 역경과 고난 속에서 꿈꾸는 희망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좋은 것만 보고 자라온 아이들에게 어두운 현실의 이면을 보여주는 기회를 주는 책. 부모님, 아이들이 함께 레미의 방랑길을 따라가보세요. **★**

김청연 기자